

미국, 쇠고기 수입 발표에도 불구하고 GATT 제소 계속 밀고 나갈 방침

정부, 금년에 쇠고기 1만4천5백톤 수입키로 확정

정부는 지난 7월 26일 대미통상마찰과 국내 쇠고기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큰 소 10만마리 분에 해당하는 쇠고기 1만4천5백톤을 수입키로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8월초까지 축협과 농협이 자금을 출연하는 「축산물유통사업단(이사장 : 명의식 축협중앙회장)」을 발족시켜 우선 올림픽용 고급쇠고기 3천톤을 8월 말까지 국내에 도착하도록 발주를 서두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양축농가의 충격을 최대한 흡수키 위해 쇠고기 수입창구를 일원화, 축산물유통사업단이 관광호텔용 고급쇠고기 수입까지 맡아 수급을 조절할 수 있게 하고, 판매차익은 모두 축산진흥기금에 흡수, 양축농가 지원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쇠고기를 수입하더라도 소값이 4백kg 큰 소 기준 1백30만원에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이 가격을 넘을 경우 수입쇠고기를 방출하고, 1백1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축산진흥기금을 풀어 소를 구매하는 소값 안정대책도를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쇠고기 수입에 따른 농가지원대책으로 ▷ 소값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 재정에서 구매자금 4백억원 확보 ▷ 옥수수·콩 등 사료곡물 수입관세를 5~7%에서 3%로 인하 ▷ 올해 양축자금 지원규모를 7백4억원에서 9백4억원으로 확대 ▷ 한우의 인공수정용 정액대를 현재 마리당 2천5백원에서 1천7백원으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축산물 유통사업단에서 쇠고기 수입과 방출업무를 총괄토록 하되 공개입찰을 통해 수입하고 경매 또는 공개입찰을 통해 공급키로 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 7월 26일 한국이 취한 이같은 쇠고기 수입개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쇠고기 수입정책에 대해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에 제소할 것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무역대표부가 27일 밝혔다.

워싱턴 로이터 연합에 따르면, 켈리 윙클러 미무역대표부 대변인은 「한국이 쇠고기 수입을 제한적으로 해제한 조치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GATT 협정에 따르면 한국의 이번 수입 쿼터는 부당하며, 따라서 미국은 GATT 제소를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윙클러 대변인은 「한국이 금년 이후에 쇠고기를 수입할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미국 관리들은 「GATT가 한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미국 정부의 계속적인 GATT 제소 위협속에 한미 양국은 오는 8월 8~9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미국 농산물 확대를 둘러싼 실무회담을 갖기로 해,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개방 조치는 이제 농축산물 수입개방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번 농산물 통상실무회담에선 미국측이 과거 개별품목의 수입개방 요구에서 농산물 문제를 ▷ 오리지·가공식품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 ▷ 콩·옥수수·밀 등 대량 구매 농산물 ▷ 목재 등 임산물 등 3개 분야로 묶어 협상을 제의해 온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이를 둘러싼 수입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글 : 김동성〉